

# “명절 특수 우리가 잡는다” 유통가 마케팅 돌입

### 무안공항, 설 특별전세기 운항...지역 호텔 '설캉스' 패키지 출시 백화점, 요리·힐링강좌 등 개설...설 상차림·모듬전 등 판매 ↑

2020년 설 명절은 대체공휴일까지 포함해도 4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귀성 대신 휴식을 즐기거나 간소하게 명절을 보내는 이들이 많을 전망이다. 지역 유통업체는 설 대목 잡기에 나섰다.

20일 무안국제공항에 따르면 '설 연휴 특별운송기간' (23-27일) 동안 무안공항 예상 이용객은 국내선 1553명·국제선 1만 2944명 등 1만4497명(90편 운항)으로 집계됐다. 연휴기간 하루 평균 탑승률은 86.9%로 지난해 일 평균 탑승률(74%)보다 12.9%포인트 증가했다.

무안국제공항 관계자는 "일본 불매운동 영향으로 일본 취항이 줄면서 지난해 설에 비해 일 평균 운항 편수와 여객 수는 각각

14.3%, 11.8% 줄었다"며 "대신 베트남 푸쿠옥·나트랑, 대만 타이완 등 16편의 특별전세기가 연휴 동안 운항한다"고 말했다.

'설캉스' (설+바캉스) 특수를 위해 지역 호텔업계는 관련 상품을 잇따라 내놓았다.

서구 차평동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은 숙박료를 최대 35% 할인하는 '겨울 특별 패키지'를 내놓으며 고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도 전신마사지와 화이트니스·사우나 서비스를 결합한 '2020 릴렉스 패키지'를 오는 3월까지 선보인다.

남구 봉선동에 본사를 둔 '라임반찬'은

모듬전과 제수용품 등으로 구성된 '설 상차림' 상품을 20일 기준 650개 판매했다. 가격은 3만3000-9만8000원으로 다양하며 21일까지 주문하면 23일 일괄배송으로 상품을 받을 수 있다.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추석 연휴 주문량 500개 보다 30% 정도 증가했다"며 "설 차례상을 차리는 데 부담을 느끼는 20-30대 소비자가 상차림 주문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지역 백화점 문화센터는 연휴 동안 쌓인 '명절 증후군'을 풀기 위한 다양한 강좌를 마련했다.

㈜광주신세계는 '홈 트레이닝' '꽃꽂이' '명절요리 만들기' 등 온라인 수강신청을 받고 있고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21일부터 다음 달까지 '바른자세 척추운동' '스트레스 해소 요가' 등 봄 학기 신청을 접수한다. 광주·전남지역 7개 이마트는 21일까지 설 선물 택배 접수를 끝내고 연휴 동안에

는 올해 트렌드로 자리잡은 '홈 파티' 수요를 노린다. 이마트는 삼겹살, 목심, 명이나물 등으로 구성된 '돼지고기 세트'와 '와인 2종 세트' 등을 전면에 내세울 예정이다.

명절을 간소하게 보내거나 혼자 보내는 '혼명절'이 늘면서 명절 지출 비용을 점차 감소하는 모양새다.

취업정보사이트 사람이인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직장인 1821명을 대상으로 '설 명절 지출 계획'을 설문한 결과 평균 41만원을 지출할 계획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44만원), 2019년(43만 5000원) 이후 2년 연속 줄어든 액수다.

직장인 10명 중 7명(66.9%)은 설 명절 지출이 부담스럽다고 말했고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로는 '부모님 용돈 및 선물'(55.9%), '세뱃돈'(12.4%), '식비'(8.7%) 등을 꼽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262.64 (+12.07)	↑ 금리 (국고채 3년) 1.46 (+0.02)
↓ 코스닥 683.47 (-4.94)	↓ 환율 (USD) 1158.10 (-1.30)

## 친환경 보일러 사면 온수매트 반값 할인

### 귀뚜라미, 다음달 28일까지

귀뚜라미가 설 명절을 앞두고 친환경 보일러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온돌 온수매트 할인행사를 시작한다.

20일 귀뚜라미는 오는 2월28일까지 환경부 인증 친환경 보일러 구매하면 온돌 온수매트 (EM7 시리즈 2종)를 최대 50% 할인가격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인증 보일러는 '거꾸로 NEW 콘덴싱 가스보일러'와 'AST 콘덴싱 가스보일러'가 있다. 이들 제품은 열효율 92% 이상으로, 환경부 환경표지인증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귀뚜라미 측은 설명했다.

행사기간 동안 친환경 보일러를 사면 정부보조금 20만원을 지원받고 '프리미엄 온돌 온수매트' 2종을 최대 절반 가격에 살 수 있다. 온돌 온수매트는 밀폐식 안전 구조, 넘어짐 안전 스위치 등을 갖춰 안전성·편의성을 높였다.

귀뚜라미 관계자는 "친환경 보일러의 무화법이 시행되는 첫해인 만큼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자 이번 특별할인을 기획하게 됐다"며 "온돌 온수매트는 취침 시간대별 체온변화에 맞춰 최적의 수면환경을 조성해 주는 '온돌 모드' 등 숙면기술을 갖추고 있어 명절 선물로 인기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지역 경제 상생 강조 "전통시장 이용하세요"

### 중기청, 남광주시장서 홍보 이용객에 장바구니 증정도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0일 광주시 동구 남광주시장에서 설 맞이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문환 중기청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지원기관 대표 등 6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내건 '가치삼시디! 날 슬로건을 알리고 시장 상인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가치삼시디'는 가치(value)와 같이(together), 사다(buy)와 살다(live)의 중의적 표현으로, 서민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제품을 구매해 상생과 공존의 문화를 확산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참가자들은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미리 준비한 예코백 장바구니를 나눠줬다. 또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과일·건어물·제수용품을 구입했다.

한편, 광주전남중기청은 온누리상품권을 특별 할인 판매 중이다.

종이 온누리상품권은 다음달 28일까지 5% 할인가격으로 전국 15개 은행 각 지점에서 구매할 수 있고, 구매한도를 월 3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상향했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10% 할인가격으로 연중 판매하며, 할인구매 한도를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높였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영구임대에 청년활동가 입주...주거·공실 동시 해결



20일 광주시 북구 각화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광주각화 청년활동가 입주식이 열렸다.

〈LH 광주전남본부 제공〉

### LH, 광주 각화동서 입주식 주민공동체 활동 의무 참여

비어있는 영구임대주택에 청년을 입주시켜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모델이 제시됐다. 청년주거문제와 주택공실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대안으로 주목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 본부는 20일 광주시 북구 각화영구임대주택에서 '각화영구임대 공동체 활성화 시범사업 청년활동가 입주식'을 했다.

이 사업은 노후화로 인한 공실문제를 청년주거문제와 연계해 해소하는 한편, 청년입주를 통해 단지내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기획됐다. LH는 최초로 자체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는 주거복지·도시재생 연계 사업이다.

LH는 지난 1990년 준공된 각화 영구임대주택 총 1415가구 중 오랜 기간 공실인 20가구(40㎡ 안팎)를 청년 20명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했다.

이들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또는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청년이다.

이들은 월 10만원가량의 임대료를 내고 매월 1회 이상 청년입주자 회의에 참석하면서 매월 2시간 이상 주민공동체 활동 또는 매월 2시간 이상 창업 활동에 참여한다.

청년입주자 회의는 청년들이 자체 조직한 회의체로 공동체 활동 방향 등을 논의한다. 주민공동체 활동은 노인들과 아동들에게 한글, 그림, 태권도 가르치기 등 재능기부를 하는 것이다. 창업 활동은 청년들

이 모여서 교육, 복지, 미디어, 자활 분야 등 창업을 논의한다.

LH는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국고 지원 등을 통해 전국 모든 노후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임대주택에 입주한 청년들은 사회적 기업에 몸담고 있거나, 창업을 앞두고 있다"며 "이들이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자율적으로 주민들과 어울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창업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청년 활동이 성과를 거두면 전국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청년활동가들의 주거와 임대주택 공실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전문건설협회 "전남 일부 시군 공동도급제 외면"

전남 일부 시군이 적정공사비 확보와 불공정하도급 거래를 근절할 수 있는 '주계약 공동도급제' (이하 공동도급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에 따르면 목포시, 구례군, 무안군, 신안군 등 전남 일부 시군은 2015년부터 작년 까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입찰·계약할 수 있는 공동도급 계약을 단 한 건도 발주하지 않았다. 영

암군은 지난해 단 한 건만 발주했다.

전남도회는 "공동도급제 확대·도입은 직접 시공 주체인 전문업체가 공사목적물의 완성도를 높이고 복합공사 시공 경합을 쌓아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문업체를 보호·육성할 수 있다"며 "불법·불공정 하도급 거래도 근절될 수 있는 만큼 지자체는 공동도급제약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전기공사협회 광주·전남지회 회장 선출

### 광주 노정규 현대로오티크 대표 전남 김려옥 아림전기 대표



노정규 회장

김려옥 회장

한국전기공사협회 광주시회와 전남도회가 각각 신입 회장을 선출했다. 임기는 3년이다.

전기공사협회 광주시회는 지난 17일 서구 벽진동 제이아트웨딩컨벤션에서 '30회 정기총회'를 열고 노정규 현대로오티크 대표이사사를 12대 광주시회 회장으로, 주식회사 삼화전력 이기엽 대표이사를 부회장으로 각각 선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광주시회는 전기공사협회 중앙회 정기총회에 참석할 9명의 신입 대의원도 선출했다. 이어 협회 발전에 기여한 시공업체 대표 및 유관기관 관계자에 포상하고, 지역 소재 대학교 공업계고등학교 전기과 재학생들에게 장학금과 장

학증서를 전달했다. 앞서 16일에는 27대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남도회장에 김려옥 아림전기 대표이사가 선출됐다.

전남도회는 이날 나주시 흥중골드스파리조트에서 54회 정기총회를 열고, 김대표를 도회장으로, 김광인 탁인 대표를 부회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전남도회도 22명의 대의원을 새로 뽑고 협회 공로자 포상, 지역 인재 장학증서 전달 등을 진행했다.

/백희준 기자 bhj@

#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 Modern

### Classic

### Mediterranean Sea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